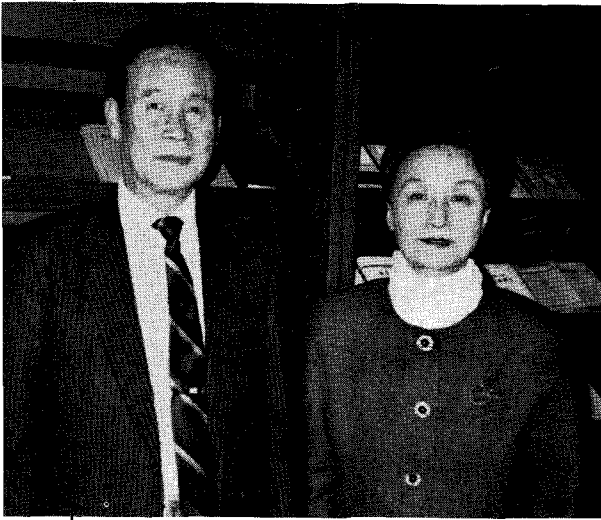


제 94 회

12月 14日,

- ... 본회가 주최한 제94 ...○
- ... 회 발명교실이 지난 ...○
- ... 12월 14일 발명장려 ...○
- ... 관 연구실에서 개최 ...○
- ... 됐다. 매월 둘째 토요 ...○
- ... 일 오후 1시 30분 ...○
- ... 에 개최되는 발명교 ...○
- ... 실은 이 달에도 1백 ...○
- ... 여 명이 참석하여 성 ...○
- ... 황을 이루었다. 이날 ...○
- ... 발명교실에서는 효창 ...○
- ... 세레늄 연구소 이효 ...○



세레늄함유 화장비누 발명가 효창세레늄연구소 이효창 하상남 부부

수질오염을 걱정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고무장갑을 끼지 않고 빨래를 하더라도 피부를 보호할 수 있고 물속에서의 분해도가 99.9%나 되는 비누가 나와 희소식을 안겨주고 있다.

효창세레늄 대표인 이효창 하상남 부부에 의해 만들어진 이 발명품은 또 탈모방지, 피부노화방지, 여드름 및 각종 피부염에 탁월한 효과가 있어 비누업계에서도 화제가 되고 있다.

국가대표 스케이팅 선수였던 이효창 씨는 40년대 초 각

종 대회를 휩쓸며 우승을 차지했고 48년에는 스위스의 동계올림픽에도 참가해서 선전했으며 곧이어 벌어진 세계선수권대회에서는 1천5백m 2위, 5천m에서 3위를 차지하는 등 스포츠계의 스타였다.

하상남 씨도 40년대 후반, 뛰어난 미모로 영화배우에 발탁되어 당대의 명배우들과 함께 「잊을 수 없는 사람들」 「처녀별」 등에 출연하여 명성을 날린 영화계의 스타였다.

이렇듯 왕년의 스타들이 이들 부부가 천연광물인 세레늄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은 30여년 전인 50년대 후반.

영화배우가 되기전에 의학전문학교를 다녔던 하씨는 당시에 쓰이던 비누가 독성이

강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인체에 유익한 비누를 만들기로 결심했다.

부군 이씨도 제약회사에서 일했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쉽게 의기투합, 광물학 서적을 뒤적이며 공동연구를 시작했다.

청계천의 고서점에서 거의 살다시피하며 4~5년을 보내다가 중국의 명의인 화타가 광물질에 대해 쓴 고서를 찾아냈고 두 사람의 연구는 급속도로 진전됐다.

그러나 주원료인 세레늄을 인공적으로 얻어내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여러가지 실험과 연구를 했으나 결과는 실패뿐.

이렇듯 커다란 벽에 부딪힌

發明教室

成功事例 등 發表

- …창, 하상남 부부의 성…○
- …공사례 발표에 이어…○
- …金寬衡 본회 상근 이…○
- …사의 「발명의 창출과…○
- …사업」에 대한 강의와…○
- …洪載日 변리사의 「산…○
- …업재산권제도」에 대…○
- …한 강의와 토론이 있…○
- …었다. 발명가의 성공…○
- …사례를 간추려 소개…○
- …한다. <柳泰洙 記> …○



이, 하 부부에게 또다시 행운이 찾아오는 계기가 있었는데 그것은 미국에서 세레늄이라는 광물질이 발견되어 각종 질병치료에 사용된다는 소식이었다.

이 소식을 접한 두 사람은 필듯이 기뻐다. 긴 세월을 기다려왔기 때문에 그야말로 하늘에서 내린 선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세레늄을 입수한 두 사람은 이때부터 밤을 낮으로 삼아 연구에 연구를 거듭했고 결국 세레늄에 다른 광물질을 첨가하여 세리온이라는 신물질을 만들어 내기에 이르렀다.

“세레늄에 대해 아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심지어 중금속이기 때문에 인체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힌다고 위협하는 사람도 있더군요.”

그러나 이효창, 하상남 부부는 주위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세리온을 이용해 비누를 제조

하는 방법을 발명, 87년 특허출원을 하였고 마침내 90년 7월 ‘세레늄함유 화장비누’ 즉 세리온 비누에 대한 특허(제 34709호)를 받아내는데 성공했다.

선진국에서도 바야오세라믹 같은 세라믹 종류들을 많이 사용하지만 물체 표면에 불순물이 끼어 세균번식이 용이하고 이온작용이 원활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반해 세리온 비누는 독성이 없고 분해도 완벽하게 되어 무공해 비누라고 하시는 말한다.

그녀가 이렇게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이씨 자신을 직접 실험대상으로 하여 얻은 실험결과 덕분이다.

그러나 비누를 만드는 과정에서 수없이 많은 실패를 겪었고 시제품을 만들어 주위에 나누어 주었으나 광물질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인정을

못받는 억울함을 감수하기도 했다.

이렇듯 많은 역경속에서 국립공업시험원의 세리온 비누의 분석 결과, 즉 중금속분해도 및 무공해의 지표인 생분해도가 99.9%를 기록했다는 통지와 ‘91 전국우수발명품전 사회에서의 은상 획득 등 계속적인 경사로 이효창, 하상남 부부는 뒤늦은 웃음을 함박 지을 수 있었다.

영화배우시절 피부관리의 중요성에서부터 시작된 세레늄 연구가 서울을 비롯한 전국 10여개 대도시에 판매망을 구축할 정도가 되었고 미국, 일본,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 여러나라에서 제품주문이 몰려들 정도로 세계적 상품이 됐다.

93년 초쯤에 충북 보은의 농공단지에 자신의 비누, 세계 공장이 들어서게 될 것이라고 말하며 두사람은 기쁜 표정을 지었다. <♣>